

<서평>

Text, Theology & Translation.
Essays in honour of Jan de Waard

(S. Crisp & M. Jinbachian, eds., Swi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04)

김정훈*

1. 들어가는 말

이 책은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로서 오랫동안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이하 UB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구약학자이자 성경 번역전문가로서 학문 세계를 넓혀 간 얀 드 바아르드(Jan de Waard)의 일흔 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그에게 헌정된 논문집이다. “본문, 신학, 번역”이라는 제목이 벌써 이 책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성경을 세계 곳곳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본문 자체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본문의 신학을 둘러싼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드 바아르드와 함께 UBS에서 성경 번역을 연구하는 이들, 그리고 본문비평과 번역에 정통한 학자들의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집필진 구성의 특징은 본서의 내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태껏 우리나라 기독교의 토양에서 잘 접해보지 어려웠던 동방 교회에서 성경 본문과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관심 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고대부터 성경 본문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프리카 지역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본문과 그 번역에 대한 문제까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은 우리에게 낯선 내용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험의 지평에 서게 해 준다는 점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성경 본문과 번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역의 역사와 배경을 다루는 각론과 더불어 이 책에는 성경 본문과 신학, 그리고 번역에 관련한 일반론적 논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 부산장신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2. 책에 수록된 논문들 훑어보기

2.1. 가장 먼저 러시아 문헌연구소(Institute of Russian Literature) 연구원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교수인 신학자 알렉세예프(Anatoly A. Alexeev)의 논문 “Masoretic Text in Russia”(13-29쪽)는 제목대로 동방교회의 한 축을 이루었던 러시아에서 마소라 본문 수용의 역사를 다룬다. 이 논문의 제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보통 러시아 정교회는 일찍부터 비잔틴의 전통에 따라 칠십인역 본문의 영향 아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알렉세예프는 먼저 슬라브어(Slavonic) 토라 독서주기 표시인 파라쇼트와 난외주가 있는 몇몇 중세 마소라 필사본을 소개하면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서부 지역으로 들어온 15세기 이전에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소라 전통을 주장한다. 곧 러시아에 기독교가 비록 비잔틴의 영향을 받아 10세기에 전파되기는 했지만, 그와 더불어 소수이지만 유대인들도 러시아에서 마소라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14-16세기에 번역된 슬라브어 에스더와 아가서 필사본에서 마소라 본문의 흔적을 찾는다. 이 필사본들에서 본문을 잘못 읽은 보기가 마소라 필사본에서 더러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주로 칠십인역을 옮긴 슬라브어 번역이 많은 부분 히브리어 마소라 전통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15세기말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서부 러시아에 도착하면서 러시아에서 구약성경 본문은 새로운 판세를 맞이한다. 유대인 회당의 요구로 수많은 마소라 본문 필사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반유대주의의 영향은 17세기에 러시아에서 마소라 본문에 대한 거부로까지 이어져서 이 시기에는 대부분 칠십인역과 불가타의 번역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파브스키(G. Pavsky)를 필두로 마소라 본문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처음으로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러시아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76년에 마침내 “공회 판”(Synodal version)으로 알려진 러시아어 성경이 출간되었다. 구약의 경우 이 성경은 슬라브어 성경의 헬라어 요소와 히브리어 원문의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무신론이 기반이 된 구 소련연방이 무너지면서 1980년대에 들어 다시금 마소라 본문을 바탕으로 한 번역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칠십인역의 전통과 마소라 본문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어온 러시아의 성경 본문과 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저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두 전통의 바탕 위에서 본문을 재구성하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쪽). 저자의 이런 주장보다는, 성경 본문의 전통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2. UBS의 번역 컨설턴트였던 클라크(David J. Clark)는 “Conversational קָנָה in Genesis: A Challenge to Context-Sensitive Translation”(31-42쪽)에서 대화에서 쓰인 히브리어 קָנָה 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할지의 문제를 몇몇 창세기 용례를 들어 짧게 다룬다. 저자는 이 말이 히브리어 대화체에서 쓰일 때는 “나를 보십시오”라는 일차적인 뜻이 아니라, 용례마다 서로 다른 사회 언어학적 상황(sociolinguistic situation)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저자는 칠십인역과 불가타 등의 고대 역본과 영어 역본, 심지어 태국어나 말라위어까지 예를 들어 이 사회 언어학적 상황을 반영하는 번역을 찾아간다. 결국 저자의 제안은 간단하다. 대화체에서 이 말은 관계성을 전제한 대답(yes)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옮겨지던 헬레니즘 시대부터 번역을 둘러싼 논의는 치열했다. 히브리어에 극단적으로 충실하기를 원했던 아퀼라, 더 아름답고 올바른 헬라어를 추구했던 시마쿠스, 그 중도를 선택하고자 했던 테오도시온 사이의 차이점들을 둘러보면 대변에 알 수 있다. 가령 창세기 46:2에서 칠십인역은 저자의 관찰대로 τί ἐστίν(무슨 일이십니까?)으로 옮긴다. 그러나 몇몇 필사본의 헉사플라 난외주는 히브리어의 직역인 ἰδοὺ ἐγώ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F. Field, *Origenis Hexaplorum*, 65쪽).

원어에 충실할 것인지, 번역어에 충실할 것인지는 번역자가 처한 또 다른 “사회 언어학적 상황”에서 해야 할 선택의 문제이다. 가령, 히브리어의 이 표현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의 문제를 들고 고민한다면 이 논문의 저자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번역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금 원어와 문화, 본문의 세계, 곧 문맥, 그리고 번역어와 문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2.3. UBS 유럽 지역 번역 코디네이터 크리스프(Simon Crisp)는 이어지는 논문 “Does a Literary Translation have to be Literal?”에서 클라크가 제기한 것과 비슷한 주제를 이어나간다. 크리스프는 이 논문에서 사실상 어떤 표현이든 문자적(literal)으로 번역해야 원문의 신뢰도를 잘 반영하는 문학적(literary) 번역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라이켄(Leland Ryken)의 책 “The Word of God in English: Criteria for Excellence in Bible Translation”(2002)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가령, 아모스 4:6에서 기근의 결과로 “이가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라이켄은 “표현 자체의 난해성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문학적”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성경 번역이론가인 나이다(Nida)와 드 바야르드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음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치아 상태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여기는데, 크리스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크리스프는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의 슬로건을 긍정적 대안이자 과제로 제시한다. 곧 번역에서 문자적 대응성과 문학적 가치의 문제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면에서 접근(multi-faceted approach)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위에서 든 아모스서의 보기에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가 깨끗하다”는 표현이 굶주림의 표상으로 이해되는 것은 히브리어 문화권을 벗어나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번역어의 문화권의 언어와 원문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은 필수적이라는 뜻에서 크리스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2.4. UBS 국제 번역 컨설턴트이자 몬트리올 대학 종교학과 교수인 진바키안(Manuel Jinbajian)은 매우 흥미로운 논문을 기고하였다.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in the Septuagint, the Peshitta and the Armenian Psalms”(53-77쪽)에서 진바키안은 본문 비평가답게 시편에 나오는 악기들이 칠십인역인 헬라어 역본과 시리아 역본인 페쉬타, 특히 아르메니아 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관찰한다.

그는 본문 비평적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만, 본문 비평적 논의가 어떻게 신학적 통찰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진바키안의 가장 주된 논점은 아르메니아 역본에 가 있다. 진바키안의 분석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아르메니아 역본은 춤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번역문에서 예둘러 표현하여 직접 드러내기를 꺼렸다.

예를 들어, 시편 150:3에서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 페쉬타는 “나팔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이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역본은 “찬미가 소리(the sound of a song of praise)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시편과 찬미가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로 고쳐 읽었다.

이런 경향은 분명히 아르메니아 역본의 의도적인 변경인데, 진바키안은 아르메니아 역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린다(75쪽). (1)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르메니아 역본은 칠십인역을 대본으로 했다. (2) τύβαλον, ψαλτήριον, κιθάρα, κυμβάλους 등과 같은 악기 이름들은 아르메니아 역본에서 번역하지 않으며, 그 대신 “찬양, 찬양하다, 찬미가를 부르다”와 같

은 일반적인 말이 쓰였다. 더욱이 춤과 관련한 용어들은 아르메니아 역본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런 경향은 신학적 해석(theological exegesis)의 결과로 보인다. 아마도 아르메니아 역본에서 제외된 표현들은 쾌락주의적이거나 이교도의 것으로 여겼던 듯하다.

2.5. 데살로니가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 신학과 은퇴교수인 카라비도폴로스(Ioannis Karavidopoulos)는 “KAPIZON ΠΑΝΤΑ ΤΑ ΒΡΩΜΑΤΑ or KAPIZON ΠΑΝΤΑ ΤΑ ΒΡΩΜΑΤΑ? Text-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s on Marks 7:19”(79-87쪽)에서 마가복음 7:19하반절 분사의 성(gender)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를 다룬다.

이 본문은 유대 전통의 정결법에 대한 예수의 평가이다. 문제가 되는 19절은 14-16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다시금 되묻고 덧붙여 해석하는 17-23절에 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21절)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그 가운데서도 19절은 음식이 왜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문 전통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본문비평가들이 선호하는 본문으로 먼저 “(예수께서) 음식을 깨끗케 하셨기 때문”(καθαρίζων πάντα τὰ βρώματα)이라는 전통이 있다. 여기서는 동사의 남성형 분사가 쓰였기 때문에 내포된 주어는 문맥상 예수이다. 이럴 경우 구세주로서 예수는 음식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 전통과는 달리 몇몇 필사본에서는 분사의 마지막 모음이 “오-메가”가 아니라 “오-미크론”으로 쓰였다. 이렇게 되면, 분사는 남성이 아니라 중성이다. 그럴 경우 내포하는 주어가 달라지는데, 예수가 아니라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πάν τὸ ἔξωθεν εἰσπορευόμενον εἰς τὸν ἄνθρωπον)이 된다. 이 전통에 따르면, 음식은 소화과정에서 깨끗해진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예수가 반어법으로 쓰지 않았다면, 이 전통의 주체가 예수가 될 수는 없다. 저자는 논문 거의 대부분에서 이 본문비평의 문제를 다룬다(79-85쪽). 따라서 독자들은 저자가 남성 분사를 선호하는 기존의 의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저자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다(86쪽). 저자의 논증 방법도 새롭지 않다. 그렇다면 이 본문비평 부분이 이렇게 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하튼 저자는 예수를 주어로 하는 남성 분사형에서 이 본문의 신학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저자는 사도행전의 용

레(10:15; 11:9)를 근거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선교 활동(mission outreach)을 위해 유대 전통 또는 이방 전통에 맞닥뜨려 했던 신학적 해석을 배경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매력적인 제목에 비해 새로울 게 별로 없는 결론에 이른 듯해 아쉽다.

2.6. 데살로니가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 신학과 교수인 콘스탄티누(Miltiadis Konstantinou)는 “Old Testament Canon and Text in the Greek-speaking Orthodox Church”(89-107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구약성경 본문 전통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먼저 유대주의 안에서 구약성경 정경화 과정을 되짚는다. 여기서 저자는 유대주의 정경이 이런 규모로 이해되기는 했지만, 정경에 들지 않은 책들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암묵적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정경의 범위보다는 본문 확정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그 다음으로 저자는 기독교 첫 천년기의 정경화 과정을 훑어 본다. 여기서 저자는 첫 천년기 기독교 정경은 결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시기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영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는 점도 짚는다. 정경화의 문제는 처음에는 유대주의, 나중에는 이단들과 충돌하면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제 정경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종교개혁을 언급한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뉘면서 정경에 대한 관점도 제각각 “정경 / 외경(pseudepigrapha)” 그리고 “정경 / 제2정경(deuterocanonical)”으로 기독교 안에서 갈라지게 되었다.

이제 저자는 본격적으로 헬라이어권의 정교회 정경에 대해 서술한다. 정교회에서 정경 개념은 헬라이어권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자연스레 칠십인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별다른 논란 없이 그 전통이 중세 이후까지 이어졌다.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논의, 곧 히브리어와 칠십인역 본문 사이에 어느 것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17세기에 들어서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충돌의 반향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저자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있었던 또 다른 변수를 언급하는데, 바로 신정정치를 표방하는 왕실의 영향이었다. 그리스 왕실과 공의회 사이의 관계에서 성경 본문은 정치적 수용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저자는 이런 일련의 역사서술을 통해 정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칠십인역이 분리되기 전 교회의 성경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취한다(107쪽). 그리고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기독교론의 입장에서 해석한 성경도 칠십인역이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문을 맺는다. 칠십인역의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인식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결론을 마지막에서 급히 드러내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직접적 근거를 충분히 대지 못한 채 서둘러 글을 맺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7. 대한성서공회에서 총무로 일한 민영진 박사는 “The Case for Two Books of Jeremiah”(109-123쪽)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부터 이어온 주제를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 바를 논증하였다. 곧 예레미야서의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저한 차이의 문제이다.

먼저 예레미야서는 잘 알려진 대로 칠십인역이 마소라 본문보다 민영진의 주장에 따르면 1/7이 더 짧다. 이 문제는 칠십인역이 생략했느냐 마소라 본문이 더했느냐에 대한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민영진은 그 판단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명백한 것은 칠십인역 본문은 그 대본(Vorlage)을 충실히 반영하며 이런 본문 전통은 이미 쿠파란 성경 본문 단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로는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은 열방 예언 부분의 순서가 서로 판이하다. 칠십인역 예레미야 25:14 이후의 구성을 보면, 이민족들에 관한 전체적인 신탁(MT 25:15-38; LXX 32:1-24)에 앞서, 개별 이민족들에 대한 신탁(MT 46-51; LXX 26-31)이 이집트로부터 바벨론으로 향하도록 정돈된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순서로 나온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신탁(MT 26-35; LXX 33-42)과 바룩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는 이른바 “예레미야의 수난기”(MT 36-45; LXX 43-51)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모두 52장으로 끝이 난다. 이로써 칠십인역 예레미야서의 구성은 이민족들의 신탁을 뒤로 배치한 마소라 본문의 전통과는 달리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처럼 하나님 백성 심판, 이민족 심판, 하나님 백성 구원이라는 틀을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순서를 상세히 견주어 놓은 표를 제시한 뒤에 민영진은 배열의 차이 자체보다는 서로 다른 두 본문이 평행본(parallel edition)임을 강조한다. 셋째로 민영진은 칠십인역이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중”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내보이는 몇몇 보기를 든다. 여기서 그는 칠십인역의 표현이 대체로 더 오래된 전통이라는 본문 비평적 판단을 한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민영진은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예레미야서는 원래의 것(original)과 이차적인 것(secondary)의 잣대로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두 판본은 독자적인 전승의 배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번역도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비평본을 만들어 번역하기보다 따로

번역하고 서로 견주어 편집하여 그 배경을 독자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한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제안이지만, 분명히 시도해 볼 만한 관점이라 하겠다.

2.8. USB에 소속된 두 학자 노스(Philip Noss)와 렌쥬(Peter Renju)는 “Scripture Translation in Poetic Form: The *Tenzi* of Mwalimu Nyerere”(125-138쪽)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스와힐리어 시문학인 “텐지”(Tenzi) 장르인 니에레레(Mwalimu Nyerere)의 번역 작품에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텐지”는 언급한 바와 같이 스와힐리어에서 전통적으로 음송하는 형태로 전승되던 이야기체와 설교체의 시문학을 일컫는다. 텐지는 일반적으로 4행이 한 연을 이루며, 연마다 각운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저자가 이 논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논점은 스와힐리어의 이 시문학에서 어떻게 시문학의 특징도 살리고 원어성경의 의미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탄자니아의 첫 대통령이자 번역가였던 음왈리무 니에레레가 번역한 신약성경 텐지를 보기로 든다. 저자들은 니에레레가 텐지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신약성경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잘 전달하였다는 평가를 내린다. 더러 각운을 살리기 위해 성경 본문에 없는 말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니에레레는 다른 본문에서 해당 구절에 적합한 말을 이끌어 쓰고 있음을 구체적인 보기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들은 니에레레의 번역을 “매력적인 번역”(attractive translation)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직역이나 의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over-translation”이라고 정의한다.

텐지의 음률은 분명히 스와힐리어를 쓰는 독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니에레레가 보여준 번역은 원어 성경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원주민들에게 익숙한 장르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서도 번역의 언어적 토착화를 고민해볼 필요를 느낀다. 특히 성경의 운문을 우리말 개역성경에서 거의 되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성경 번역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흥미로운 논문이다.

2.9. USB의 번역 컨설턴트였던 오그덴(Graham S. Ogden)의 논문 “The Relationship between Isaiah 33.14b-16 and Psalm 15.1-5”(139-146쪽)은 전승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비교하는 이사야서 33:14b-16과 시편 15:1-5은 모두 야훼 하나님 앞

에 설 수 있는 이의 자격을 언급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낱말들도 매우 비슷하여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와 비슷한 문구를 시편 24:3-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세 본문이 공통된 제의 전승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전승이 가장 우선하느냐의 문제이다. 저자도 인정하듯 우선성을 결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시편 15편이 긍정적 자격과 부정적 자격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이 되는 전승이며, 긍정적 자격만 언급하는 이사야서는 본문의 문맥에 맞게 조정된 형태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사야서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논하는 전승을 심판에 이은 희망과 위로와 약속의 문맥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10.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서 칠십인역 영어 번역 프로젝트(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이하 NETS)를 주도했던 피터스마(Albert Pietersma)는 “An Ode among Psalms: A Commentary on the Fourth Greek Psalm”(147-161쪽)에서 시편 4편의 칠십인역 본문을 주석하였다.

사실 이 주석은 NETS에서 번역에 이어 계획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피터스마는 여기서 시편 4편을 보기로 하여 칠십인역 주석의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피터스마는 자신들이 계획하는 칠십인역 주석의 기본 방향을 밝힌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편집본의 본문을 사용하여,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잘 밝히고, 대본이 되었던 히브리어 본문과의 관계를 살펴서 번역자의 의도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피터스마의 견본 주석의 형식을 보면, 먼저 주석을 위해 히브리어 본문, 칠십인역 본문, 그리고 NETS 영어 번역 본문을 쓴다. 그런 뒤 주석에서는 주로 번역 기법과 관련한 언어적, 문헌적 관찰이 주를 이룬다.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서 그러리라고 여기지만, 주석이 주로 어휘 위주의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문맥이나 번역자의 신학적 의도가 밝히 드러나 있지 않다. 실제로 주석이 완간되면 그런 점도 보완될 것을 기대해 본다.

아직 칠십인역 번역은 커녕 관심의 눈길조차 드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미 칠십인역 번역을 완료하고 주석에 들어간 NETS가 부럽기까지 하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번역과 주석을 겸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번역과 본문비평을 완성하여 출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속히 헬레니즘과 신약시대의 중요한 유산인 칠십인역의 번역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2.11. UBS의 번역 컨설턴트인 데 레흐트(Lénart J. de Regt)는 “The Prophet

and the Second Edition of Jeremiah: Increased Dramatisation and the Modern Translator”(163-175쪽)에서는 예레미야서의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의 차이점에서 시작한다. 특히 저자는 예레미야서가 짧은 칠십인역 본문(Edition I)과 그것을 확장한 마소라 본문(Edition II)의 두 단계로 편집되었다는 토브(E. Tov)의 주장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저자에 따르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마소라 본문에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어 생동감 있게 극적으로(dramatised)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몇몇 구체적 보기를 근거로 든다. (1) 칠십인역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신탁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마소라 본문은 화자나 신탁의 직접 대상을 예언자 예레미야로 바꾼 보기들, (2) 칠십인역에서는 함축된 예레미야의 이름과 역할이 마소라 본문에서는 훨씬 더 강조된 보기들, (3) 화자의 교체가 칠십인역보다 더 많은 마소라 본문의 보기들. 마소라 본문에서처럼 화자를 자주 교체하는 현대 역본들을 “극화한 성경”(Dramatised Bible)이라 일컫는다. 저자는 화자의 교체가 생동감을 더해 주지만 읽고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다고 보아 “보상 전략”(compensation strategies)을 제안한다. 곧 화자가 교체될 경우 난외에 그 화자를 써주거나 줄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데 레흐트의 논문은 결국 본문의 논쟁이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시작하여 현대어 성경의 번역 기법으로 맺는다. 저자는 마소라 본문 예레미야서의 화자 변환이 칠십인역의 대본이었던 히브리어 본문의 극화 과정에서 생겨났으며, 이를 분명히 할 장치가 현대어 역본에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칠십인역과의 본문 비교에 비해 결론을 성급히 마무리하는 바람에 다소 설득력을 잃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두 판본 이론 자체가 여전히 논란거리라는 점도 이 논문의 논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12. UBS의 컨설턴트로 은퇴한 스캔린(Harold P. Scanlin)은 “Authority, Canon and the Bible Societies”(177-191쪽)에서 성경 출판에서 외경의 위치에 관하여 출판 역사를 되짚는 방법에서 논의를 전개해 간다.

스캔린은 제임스왕역(King James Version)이 나온 이후 200년 이상 개신교 성경에서도 외경은 포함되어 출판되었지만, 청교도 운동 이후 영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BFBS)에서 출간한 제임스왕역 성경에서 외경이 빠졌으며, 그 영향으로 개신교 영어 역본 성경에서는 외경이 빠졌다는 말(*Ancient Texts Alive Today: The Story of the English Bible*)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성경 출판에서 외경의 존재 유무에 대한 정

확한 역사적 진행과정을 밝히기 위해 16세기 전반부부터 출판된 거의 모든 성경을 살펴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청교도 운동이 외경 제외 성경 출판의 주요 요소이기는 했지만, 17세기 초에 벌써 적잖은 개신교 성경에서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외경이 제외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다시금 외경을 포함하는 영어 성경이 영국성서공회에서 출간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외경 논의를 통해 결국 영국성서공회와 UBS의 정경 정책에서 정경의 범위나 순서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경에 대한 기존의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먼저 “정경 안의 정경”(Canon within Canon) 개념으로 독자들이 속한 종교 공동체의 선호도에 따라 차별하여 정경의 날권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로 “열린 정경”(Open Canon)의 개념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정경 제안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사실상 이 두 개념은 정경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탈-정경화”(De-Canonisation) 개념인데, 상황 재구성을 통해 완전히 새롭고 개인화된 정경 개념으로 이끄는 방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에서 말하는 “성경과 만나기”(Scripture engagement)로서 탈-정경화, 개인화된 정경화를 소개한다. 이는 다양한 공동체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방법도 한계가 있음을 언급한다. 저자는 결국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정경 논의의 문제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으로 열린 결론을 내린다. 정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종교 공동체의 규범이 되는 척도로서 규정된 범위의 책이라고 볼 때, 포괄성을 논의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저자의 열린 결론은 우리에게 지속되는 고민과 논의로 초대하기에 충분하다.

2.13. 구약성경 본문비평의 대가이자 은퇴한 스위스 프리부르크 대학 교수로서 BHK(Biblia Hebraica Quinta)의 편집장인 쉥커(Adrian Schenker)는 “Der vergeudete Sieg, oder wer spricht zu wem in 1Kön 20:34? Von der Übersetzungskunst, echt Impliziertes von vermeintlich Impliziertem zu unterscheiden”(왕상 20:34 소진한 승리,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실제 함축된 것과 추정상 함축된 것 사이를 구분하는 번역 기법에 대해; 193-198쪽)에서 열왕기상 20:34의 본문 비평적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쉥커는 사실상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목대로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하는 기법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쉥커가 택한 열왕기상 20:34는 본문에 함축된 요소를 구체화해야 하는 경우를 잘 보여주는 보기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벤하닷이

맞서 전쟁을 벌여 아합이 승전한 후 아합과 벤하닷이 만나는 장면을 그린다. 대부분 이 구절은 아람 왕 벤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의 대화로 간주된다. 곧 전반절에서 성읍과 시장(거리)을 되돌려 주겠다는 말을 벤하닷에게 돌리고, 후반절에서 조약을 맺고 놓아주겠다는 말을 아합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로써 본문은 어려움 없이 이해된다. 그러나 문제는 본문에는 화자가 바뀌었다는 어떤 언어학적 표지도 없다. 한편 칠십인역이나 타르굼 페쉬타와 같은 고대 역본이나 루터 역본의 경우에는 34절 전체를 아합에게 돌린다. 쉥커는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이해의 핵심은 *הַמְּצֻרֹת*라고 주장한다. 이 낱말은 “거리” 또는 “시장”이다. 쉥커는 이것이 수도에 설치하는 거리 형태의 시장이며, 속국에서 올라온 조공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해한다. 이럴 경우 승자의 교만한 아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35절 이하에서 아합이 심판의 예언을 듣는 문맥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쉥커는 이 보기를 통해서 문장에 함축된 것을 번역에서 구체화하는 번역 기법의 기준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전체 이야기의 맥락에 어울려야 하며, 문장의 의미와 구문론의 측면에서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하는 것은 쉥커가 즐겨하는 논증 방법이다. 더 많은 예를 통해서 쉥커의 제안을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2.14. 마지막으로 본문 비평과 쿵란 본문의 전문가로서 히브리 대학 교수로 은퇴한 토브(Emanuel Tov)는 “The Ketiv-Qere Variations in Light of the Manuscript Finds in the Judean Desert”(199-207쪽)에서 중세 마소라 전통인 케티브/케레가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본문 전통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의 문제를 다룬다.

케티브/케레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갈래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읽기의 수정이나 고대 본문 전통의 반영이냐의 문제이다. 토브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데, 토브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여 밝힌다(207쪽): (1) 쿵란 동굴을 제외한 다른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Proto-MT는 중세 필사본들과 동일한 본문 형태를 내보인다. (2) Proto-MT에서는 케티브/케레를 제외한 모든 중세 필사본 본문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3) 케티브/케레의 이형은 고대 필사본의 어떤 난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케티브/케레는 중세에 들어서야 필사본에 들어온 구전 전승을 반영한다.

필자의 최근 연구(J. H.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2.Samuel”, ZAW 123 [2011], 27-46)에 따르면, 마소라 전통의 케티브/케레는 중세 필사자들의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고대 본문 전통

의 반영이며, 이는 칠십인역 본문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토브가 제외한 콥란 동굴의 본문 형태는 칠십인역과의 관계에서 케티브/케레를 판단하는 것에 지지한다. 또한 난외주는 필사본 역사에서 비교적 후대에 생겨났으며, 고대에는 유동적인 본문 형태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토브의 주장은 전체적인 조망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구체적인 본문의 모든 양상을 포괄해 주지는 않는다. 이 또한 토브의 논증 특징이자 제한적 관점이기도 하다.

3. 나오는 말

기독교에서 성경 본문의 역사는 번역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구약성경의 경우 히브리어가 헬레니즘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되어 칠십인역이라 불리고, 그 이후 기독교인들의 정경이 되어, 선교 영역의 확장에 따라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나갔다. 원래 번역은 반드시 번역자의 본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 번역된다는 말은 그 본문이 번역어(Zielsprache)로 이해되고 해석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경 본문의 번역과 관련한 이해와 해석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며, 그런 뜻에서 성경 본문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 뜻에서, 비록 집필자에 따라 논문의 편차가 있으며, 논문 모음집이라는 책 자체의 특성으로 논의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성경 본문과 번역에 관심을 둔 이라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라 여긴다. 특히 성경의 본문이 기나 긴 교회의 역사를 거치면서, 고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 본문과 그 본문의 번역을 넘어 새로운 신학적 해석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주요어>(Keywords)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경 번역, 본문 비평, 번역 기법, 정교회.

United Bible Societies, Bible translation, textual criticism, translation technique, Orthodox Church.

(투고 일자: 2012. 2. 19, 심사 일자: 2012. 3.2, 게재 확정 일자: 2012. 3. 2)

<Abstract>

**Book Review - *Text, Theology & Translation.*
*Essays in honour of Jan de Waard***

(S. Crisp & M. Jinbanchian, eds., Swi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04)

Prof.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resent volume consists of 14 essays, which are dedicated to Jan de Waard in celebration of his 70th birthday, who has worked as UBS Interregional Coordinator of Work on Ancient Languages and Texts. As the title of the volume shows, the essays contained could b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ome essays deal with the concrete problems arose from the regional translations of the Bible such as Russian Orthodox Church on the one hand, and the principal theory or hypothesis or theory formed for the translating the Bible on the other.

Because to translate means nothing but to interpret, it should be also useful to read this volume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biblical theology. The readers are inevitably urged to ponder over, how the biblical text should be properly translated, that is theologically interpreted. Although the respective essays cannot be threaded in a consistently convincing argument, this volume is free from impairment of its value.